

문명화이론을 통해 본 개항기의 주거와 그 근대성의 재조명*
Interpretation of Korean Housing in the Period of Opening the Country to the West
and its Modernity Focussed on the Civilization Theory

가톨릭 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전공
조교수 전남일**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istant Professor : Jun, Nam-II

<Abstract>

Since Korea open her ports to the West, she had undergone a great change under the alien influences both on the macro-social and micro-social aspects.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korean housing, corresponding with the everyday life, during the period of transition between the 1876 - 1910 and to interpret its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the meaning of modernity. With regards to understand the holistic human relationship and place pf living through history, this study takes the Nobert Elias' Civilization Theory as a theoretical basis.

References were therefore, made to various records of foreign missionary at the time, with respect not only to macro sociological changes but also to changes of everyday life. It is of course to take physical and structural aspects of housing architecture into consideration. These works, thus, led to presuming the housing culture of said period. In order to investigate *modern character of korean housing, distinctively represented by spatial structure*, considerations were made to various architectural examples according to the social and residential status both in urban and rural area.

As a results, this paper came to the remarks as follows;

1.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is a part of the process of civilization as synthetic process. It is integrated with the change of socio-cultural aspects and everyday life.
2. Korean housing in the said period shows various *different residential status and grade of civilization* according to the social status as well as economical status. Modern housing was not in general yet.
3. Housing for high classes and middle classes in Seoul shows a tendency of assimilation and imitation after western model. But some examples within the housing of high classes represent its own modernity, that is based on the rationalism and equalization
4. In the housing of lower classes, it was very far from the benefits of civilization. It could analogize from the immature control of disgrace, from undevelopment of individual territory and from uncultivation of rationality in the housing space.

▲주요어(Key Words) : 근대성(modernity), 문명화이론(civilization theory), 사회사(macro-sociological history), 미시사회(micro society), 일상사(history of everyday life), 사회적 계층(social status)

* 본 연구는 200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 주저자: 전남일(E-mail : nijun@catholic.ac.kr)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에서 근대라 함은 일반적으로 갑오경장 이후 신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계기를 마련한 1876년의 개항을 그 기점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통 이 땅에 지어진 최초의 근대적 주거라고 소개되었던 것들은 개항과 함께 들어 온 서양인들에 의해 지어진 소위 양풍주택이었다. 이는 주거의 근대화란 곧 “서구형의 주택형식 도입”라는 등식을 전제로 하는 시각이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주거라는 현상에 비추어 근대화를 논함에 있어서 우리의 주거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띠기까지 그 변화의 과정과 결과로서의 주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근대화란 분명히 어느 날 갑자기 서양풍의 주택이 한두 채 들어선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작 이 시기의 주거에 대하여 궁금해지는 것은 대부분의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어떠한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항기 민중들의 주택은 오늘날 남아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궁궐, 대사관저와 같은 특수계층을 위한 건축, 또는 관공서, 종교건축 등과 같은 공공을 위한 기념비적 건축물과 달리 주택건축은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인한 기술적, 재료적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주택의 유구들은 잘 지어진 상류계층의 주택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이러한 민중의 주거야말로 다수의 보통계층의 인간 삶이 적나라하게 반영되는 거울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통 이하 계층의 주거의 역사에 대한, 그래서 보통사람의 일상사를 파악할 수 있는 주거사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많은 역점을 두는 점은 이제까지의 시각과는 달리 바로 주거사 연구의 사각지대인 민중들의 주거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이 민중들의 주거의 근대화 과정은 우리사회 전체의 근대화조류에서 가장 주류가 되는 계층의 근대화과정이라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학계의 새로운 관심사는 미시사이다. 이는 사회학, 문화학, 역사인류학 등에서 최근 대단한 관심사로 떠오른 일상사에 대한 연구 작업, 즉, 인간 삶의 미세한 부분의 역사를 밝혀내는 작업이다. 미시사를 다루는 역사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주거를 통한 개인역사의 전개, 가족 및 주거의 변화, 주거변화의 문화사적 진행은 매우 중요시되는 주제들인 것이다. 따라서 주거란 것이 인간사의 복잡한 제반현상들과 얽혀있음을 고려한다면 주거라는 현상의 시간적, 역사적 변화와, 그 배경이 되는 여러 사회 문화적, 구조적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관찰하는 유럽에서의 주거 연구는 매우 타당한 시각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을 뒤받침 해주는 이론으로는 대표적으로 Norbert Elias의 문명화 이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인간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의 미시적 관계망을 밝혀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

적 사회변동뿐만 아니라 미시적 일상사, 그리고 물리적으로 구현된 주거공간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고찰을 통하여 주거를 통해 표출되는 개항기 주거의 근대성을 재조명해보고 한다. 이때 Elias의 문명화이론은 근대화를 설명하는 근간이 된다. 둘째, 이제까지 개항기의 주거에 대하여 주로 상류계층을 대상으로 그 근대성을 논하였던 것과는 달리 중류, 중하류, 하류 계층의 주거를 함께 논함으로써 그 근대성의 발현이 개항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주거의 근대화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하는 주거의 주류를 밝혀냄으로써 “양풍주택”으로서 근대화를 논하였던 시각을 바로잡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1876년 개항과 한일합방이 된 1910년까지의 구한말로 한다. 이 시기는 학계의 여러 기존 연구들에서 한국사의 개항시기로 확고히 규정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한국사회가 근대적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전통적인 봉건, 농경사회로부터 근대적인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한국사회는 내적, 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주거의 변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본 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개항시기의 고찰 대상은 상류주택, 중류주택, 서민주택, 하류계층의 주택 등 계층별 사례이다. 서울과 지방의 사례를 가능한 한 포괄하되, 지방의 경우는 그 당시 주거상황에 대한 남아있는 자료의 한계로 말미암아 부득이 고찰의 사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식주택과 외국인 주택도 고찰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전적으로 문헌고찰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개항기의 시대상과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외국인선교사의 기록, 생활사, 민속사, 방면의 문헌 및 연구논문 등을 통하여 주거에 관계된 사료들을 정리한 후 그 시기의 주거상을 유추하였고, 문헌상 남아있는 주택의 평면도를 수집하여 구체적인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II. 문명화이론에 비추어 본 개항기의 주거

개항시기 주거에 대한 묘사는 그 시기 한국에 들어온 서양인들의 견문기에 잘 나타나 있다. 독일인 헤세 바르텍이 1894년 서울을 다녀간 후 쓴 글과 당시 왕십리 일대의 사진(그림1)(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2, p.170)을 보면 그 당시의 전적 도시주거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서구인의 눈에 비친 서울의 이러한 주거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주거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열악하며, 비록 도시의 일부만을 묘사한 것이라 할지라도 수도 서울의 명색과는 거리가 멀다.¹⁾

1) 이러한 모습은 번성했던 도성 안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되나 확인되지는 않는다.

젓빛 속에 젓빛, 지면과 거의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납작한 초가집 수 천만 채가 마치 공동묘지처럼 웅기퉁기 뻣뻣이 들어서 있었다..... 어떻게 이처럼 지저분하고 곧 쓰러질 것만 같은 오두막에서 사는 게 가능할까? 100M에 한 채나 될까, 몇 채 되지 않는 중국식으로 올린 기와지붕이 보이지만 그나마도 오두막집보다 더 높아 보이지도 않는다. 서울시대 전역에는 이층집이 두 세 채나 될까? 그래서인지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여기 보이는 짙으로 덮인 오두막이 인가란 말인가? 그렇지만 지붕들은 아무렇게나 쌓아둔 짙단 같고 이엉은 제멋대로 구부러진 나무등치에 짙단을 둘러놓은 듯 했으며, 기둥 역시 굵은 채로 흙더미와 섞여있었다..... .성냥 한 개만 있으면 초가로 이루어진 바다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골목들은 또한 시내에서 가장 더러운 곳인데 오물과 쓰레기들을 씻어내려 갈 하천이 없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항상 집 앞에 잔뜩 쌓여있다. 가옥 뒤켠에도 도무지 공간이라는 게 없다. 대부분 가옥들은 3-4열로 뻣뻣하게 들어서 있다..... 집 바깥벽은 깎아 다듬지 않은 돌맹이로 차곡차곡 쌓았고 방바닥은 땅에서부터 약 1-2척 높이쯤 올라와 있다. 그 위에 편편한 돌이나 널빤지를 깔 후 흙을 바른다..... 잘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기둥 네 개가 2-3척 정도 두께의 벗 짙단으로 이어진 지붕을 받치고 있다. 다른 한 칸에는 역시 흙으로 발라만든 부엌이 밖으로 난 있는데 거실문은 길 쪽으로 문이 나 있고 두 세 개의 종이창문이 지붕에 거의 딱 붙어서 나 있다. 방바닥은 두껍고 거친 기름종이로 발라져 있으며 그 위에는 보통 짙으로 짠 자리가 깔려져 있다. 화장실이라는 곳은 방에서 길 쪽으로 따로 만들어져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인데 대부분은 걸거리와 붙어있기도 하고 집문 바로 옆에 있기도 하다.(김영자 편역, 1994, p.149 -170)



<그림 1> 1891년 왕십리 일대

전반적인 주거상황 뿐만 아니라 이 묘사는 개항기 주거의 문명화 정도를 설명해 준다. Kamacher(1980)에 의하면 주거의 문명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수치심과 불쾌함에 대한 자각이다. 이는 전체 사회의 경제적, 구조적 발달 하에서 개인이 사회화되면서 개인의 문명화 과정으로 형성된다. 문명화 과정이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냄새, 소리 등이 익명성을 띄기를, 즉 나의 은밀한 행위가 남에 의해 보여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게

2) 아마도 매우 수적으로 많은 것에 대한 과장된 표현인 것 같음.

되며 이를 육체적으로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육체적 행위에 대한 자기통제, 그리고 수치심과 불쾌감을 공간적으로 통제해 주는 실의 등장으로 구체화되는데, 그것이 바로 독립적인 화장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기록에는 어린이들이 거리의 아무 곳이나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이 많이 등장한다. 헤세 바르텍의 묘사에서 나타나듯이 화장실이 주거공간 깊숙히 자리 잡지 않고 개방적 공공영역과 접해있는 모습, 이는 분명 엘리야스의 문명화이론³⁾에 비추어보면 문명화 이전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이 변화하는 가장 간단한 계기는 보고 배우는 것,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방하는 것이다. 발전을 향한 내재적 욕구, 인간의 주거에 대한 기본적 욕구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서구에서 산업혁명 이후 서민 노동자계층의 주거를 변화시킨 계기는 상류 시민계급의 주택에 대한 선망이었다. 이것이 문명화이론의 부수적 개념인 모방화이론과 식민화이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화 과정의 출발선상에는 서구문물의 유입이라는 큰 변수가 자리 잡고 있다. 즉 서구문물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선망과 모방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것이 상류계층으로부터 서서히 민중으로까지 긴 시간을 두고 파고드는 시발점에 바로 이 개항시기가 있다. 문명화이론은 이를 서구의 입장에서 서구문명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여 설명한다.

현재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즉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문명의 확산'이라 이르는, 서구의 제도 와 행동수준이 서구를 넘어 전파되는 현상은 우선 수세기 동안 서구 내에서 완성된 운동의 마지막 물결을 이룬다. 과학이나 기술이나 특정한 유형의 자기통제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포함한 이 운동의 전형적 유형과 경향 등은 '문명'이란 개념이 있기도 전에 서구사회 안에서 이미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과거 서구사회에서 긍정이나 상인들의 중심지로부터 행동의 전범들이 확산되어 나갔듯이, 서구사회로부터 -일종의 상류층으로서- 서구인들이 다른 나라에 정착해서 다른 민족의 상류층이 동화해서든 간에 서구의 '문명화된' 행동양식은 서구 이외의 나라들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노르베르트 엘리야스, 1976, 박미애 역, vi.I, 2000, pp.338-339)

서구의 문명화과정 이론의 골격은 이렇다. 문명을 표상하는 각종 예의, 습관, 행동양식, 유행은 일단 긍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끊임없이 상위 중산층에게 침투되고, 그곳에서 모방되고 다른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조금씩 변형된다. 그리하여 이 표상들은 상류층을 구분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다소 잃어버린다. 즉 평가절하 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금 상류계층에게 자신들의 관습을 한층 더 세련되게, 더욱 발전시키는 압력이 된다. 이러한 긍정행동의 형성과정은 장기적으로 일정한 방향과 발전노선

3) 엘리야스는 문명화 과정을 외부통제로부터 자기통제로 변하는 과정, 인간의 생리적 활동이 점차 사회생활의 무대 뒤로 축출당하고 수치감을 수반하게 되는 과정, 본능생활과 감정생활 전체의 조절이 지속적인 자기통제를 통해 점점 다양한 방면으로 확산되고 일정해지고 안정되어가는 과정 등으로 인식하였으며, 이것은 문명화이론의 근간이 된다. (노르베르트 엘리야스, 1976, 박미애 역, vi.I, 2000)

을 갖고 있는데, 이를 '세련화,' '문명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문명'은 문명화과정이 일단 완성되어 그 과정이 잊혀지는 단계이다. 이때 사람들은 이 과정이 다른 민족들에게서, - 즉 서구가 우리에게 들어온 문명과 같은 것 - 또는 일정기간동안 자기사회의 하층민들에게서도 완성되기를 바란다. 이 때 '문명'은 상류층과 중산층에게 하나의 확고한 소유물이 된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그것을 확산시키고 도달한 수준의 범위 내에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노르베르트 엘리아스, 1976, 박미애 역, viI, 2000)

1915년 <한, 양 혼용의 파티 광경>을 보여주는 그림2-1(신석호 외, 1971, 사진자료편)은 서구의 상류 시민계급사회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양탄자가 깔린 넓은 식당의 식탁과 의자, 그리고 사람들의 포즈는 새로운 문화에 이미 익숙한 듯하다. 이는 그림2-2(Adelheid von Saldern vl.3, 1997, p.171)의 1848년 독일 사회의 남성 살롱문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야유회 광경과 비교해보아도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도 궁정, 또는 상류사회에 이러한 철저히 문명화된 -서구의 시각으로 보아-, 세련된 관습이 침투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되어 아래로 흐르고 흘러 전체사회에 널리 퍼지게 된다. 구체적 변화의 주체는 민중이나, 어느 시대나 새롭고 좋은 것의 시작은 상류계층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시기에도 상류주택은 위에서 묘사한 민중들의 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초가집의 바다>와 <한, 양 혼용의 파티 광경>으로 대표되는 오늘날보다 더욱 심한 이러한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이중적 주거상황은 이 시기의 하나의 특징을 이룬다. 주목할만한 점은 전반적으로 서민주거로까지 확산되리라 예상되는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이들의 주거의 변화로부터 감지된다는 것이다. 상류계층의 주거는 다른 계층의 주거의 모델역할을 하면서 "문명화"의 전파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주거의 문명화가 진행되는 과정은 개항시기의 주거상황 전반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그림2-1> 한, 양 혼용의 파티 광경



<그림2-2> 상류사회 인사들의 야외모임

III. 개항기 근대적 주거의 출현과 그 의미

1. 사회사적 측면

1) 새로운 사회사상의 확산

일찍이 실사구시의 학문인 실학의 영향을 받은 시대의 선각

자들은 개항기에 들어와서 더욱 실천적이고 생활개혁 지향적인 개화사상을 고취하기 시작하였다. 급진적 개화파인 박영효는 개화를 "새로운 것을 성취하여 자립을 이룬다"(이만열 외, 1996, p.10)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전까지의 낡은 것을 지켜 다른 세력에 의지한다는 수구적 개념에 반기를 들었다. 한편 유길준은 미국, 유럽유학을 경험하면서 전문록인 서유견문을 출판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서양의 문화와 제도, 삶의 양식, 학문, 교육, 선진적 기술, 생활상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동도서기적 입장에서 서양 문물의 단순도입보다는 보편적 의미에서의 개화, 즉 보편적 발전 및 기존 가치관 및 문화와의 융화를 강조하였다. 개화사상을 알리는 데는 당시의 독립신문, 황성신문과 같은 언론의 역할이 컸으며, 이는 나중에는 일반적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궁극적으로 개화란 "개물(開物)과 화민(化民), 즉 국내자원의 개발에 의한 산업의 근대화와 계몽과 교육에 의한 인간의 의식과 지식의 근대화"로 이해되었다.(강제연, 정창열, 1981, p.175)

이러한 개화사상은 한국 사회변화의 한 획을 긋는 개항이라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부딪치며 실현할 수밖에 없다는 구체적인 계기를 갖고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다. 1884년(고종 21년)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가 개화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의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목표로 일으킨 갑신정변, 그리고 1894년 개화당이 집권한 이후 종래의 문물제도를 근대적 국가형태로 고친 갑오경장으로 이르는 사회의 변혁은 결국 신분계급의 와해와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시장경제의 도입을 불러왔다. 이는 유교의 지배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구조를 뿌리째 뒤흔든 사건이며, 거시사회로부터 미시사회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개항과 개화는 구체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초기에는 보통의 일상적 생활을 지배하는 복잡다난한 습속을 지배하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개화사상은 일반 대중에 대하여는 교육과 계몽을 필요로 하였다. 개화사상은 아래로 전파되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었고, 전통과의 단절을 구습타파라는 명목으로 의식적으로 정당화되었다. 개화사상과 신문명은 전통적 가치관 및 문화와의 충돌, 동화, 반목, 수용, 타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파되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의식구조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2) 외국인의 유입

개항시기의 큰 사회변화로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개항장 및 거류지의 형성을 들 수 있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 체결로 부산, 원산, 인천 등의 도시에는 중심으로 개항장이 서고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되었다. 이 거류지를 기점으로 일인의 이주가 급속히 늘어 1910년에는 전국적으로 17만 명에 이르도록 팽창하였다. 서울의 경우 일본인 가구 수는 1885년 18호에 불과하던 것이 1890년 137호, 1900년 549호, 1913년 7,500호에 달하였다.(문홍길, 1982) 특히 일본인들은 한옥을 임대하여 장사를 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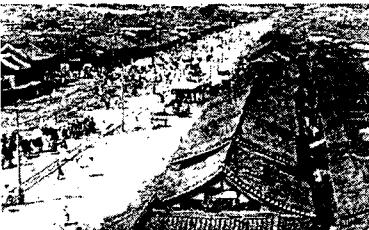
는데 이들은 차츰 한국인의 가옥을 매입하기 시작하고, 또한 토지까지 점유하기 시작하여 이때부터 값싼 폭등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식으로 가옥을 매입한 일본인들은 그 자리에 일식주택을 짓기 시작하여 이른바 충무로, 용산, 진고개 등의 거류지에는 일본인 주택들이 즐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종의 부동산 투기로 일본인들은 막대한 면적과 막대한 재산가치를 지닌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1891년에 23,000평, 약 33,000평)(신영훈, 1983, p.214) 그림3(김영자 편역, 1994, p.149)은 한말의 일본인 거류지를 묘사한 것으로써 당시 한국인 거주지를 묘사한 것과는 달리 매우 깨끗하고 정비된 모습을 보여준다. 일식주택 역시 한국인에게선 선망과 모방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림3> 서울의 외국인 거류지



<그림4-1> 1880년 무렵의 종로거리



<그림4-2> 1899년 무렵의 종로거리



<그림4-3> 1905년 무렵의 종로거리

그림4(서울특별시 편, 1984, pp.36-37)를 보면 같은 종로거리라 하여도 1880년, 1899년, 1905년의 모습이 무척 다르다. 초가로 뒤덮여 있던 가로가 약 20년 만에 길 양편에 거의 기와집이 들어선 가로로 바뀌었고, 또 5년 만에 일식절충의 2층 상가가 들어선 모습이 보인다. 이를 보면 같은 개항시기에서 그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빠르고 급격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전 조선시대까지 유일하게 존재해 왔던 “한옥”이라고 통칭되는 우리 고유의 주거형태 속에서 새로운 주

거형태들이 등장하였다. 한옥의 변형된 주거형태를 비롯하여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한, 일 절충식, 한, 양 절충식, 양식, 일식 등의 다양한 주거형태들이 선보인 것이다. 비록 초기에는 전체 주택 수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했다고 여겨지지만 이는 분명 새로운 변화의 물결임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다양한 공존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3) 주거의 사유재산화

이 시기에는 토지의 사유화를 국가가 인정하는 획기적 변화가 일어났다. 외국인들은 성내의 집을 구입하면 집과 함께 그 터전도 자기의 소유가 되는 줄 믿고 일단 구입한 땅이 빈터로 남아있어도 다른 사람의 점유를 용납하지 않았다. 일본인들 역시 위에 언급한대로 토지를 사유화하여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한성부도 이를 묵인하는 태도여서, 이때부터 집터의 사유화 경향이 팽배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09년에는 법률 제 2호로써 가옥세법을 제정, 공포하고 한성부내의 가옥소지자와 토지 소유자들에게 과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기존의 집을 구입한 사람은 집터의 점유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사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역으로 집을 헐어낸 빈터에 허가를 받아 집을 지으면 그것을 두고 방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신영훈, 1983) 바꾸어 말하면 가옥은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집터는 소유권이 없었던 것이었다. 사유란 것은 프라이버시 개념의 일종이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공동체적인 생활에 익숙하였고, 공용의 외부공간은 이를 뒷받침 해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터를 내 것이라고 타인이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초기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개념을 근대화 과정에서 물리칠 수는 없는 대세였고, 이로써 주택은 재화로서 시장경제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2. 미시사회적 측면

1) 가족공동체 이념과 그 변화의 시작

공동체중심적인 대가족은 전통적 한국 가정 및 사회의 이상형이었다. 1882 W.E. 그리피스가 쓴 한국에 관한 역사서 <은자의 나라 한국>에는 다음과 같은 공동체적 습속이 나타나 있다.

전 동아시아에서는 가족의 유대가 오늘날의 백색 인종들보다 더 밀접하다. 사회적 지위나 빈부나 유식, 무식, 관, 천에 관계없이 15촌이나 20촌이 될지라도 모든 혈족들은 같은 문벌, 즉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일 가족이며, 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 지켜야하는 상호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 사람의 집은 저 사람의 집도 된다. 각 가족은 돈을 벌거나 관직에 오르거나 이권을 얻기 위해 다른 가족을 최대한 도울 것이다.....서양의 경우와 같이 가족은 하나의 단위 공동체 구실을 하지 않고 부족의 한 부분, 즉 혈족의 거대한 단체 내의 한 분절을 이룬다.(W.E. 그리피스, 1882, 신북룡 역 vol.3, 1999, p.340)

전통사회의 대가족제도는 이른바 유교적 이상의 구현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뒷받침받지 못하며, 경제적으로 이러한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계층은 상류 양반계층 뿐이었다.(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2) 서울의 경우 양반계층에서는 확대가족의 비율이 가장 높은 48.3%를 보이고, 평민계층에서는 핵가족의 비율이 64.8%로 가장 높다는 것을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이 양반계층은 신분지향적, 가문지향적인 폐쇄된 집단의 성격을 보인다. 높은 담장으로 경계화된 주거공간, 과시적 허장성세 등이 이를 말해준다.

한 가족 내에서의 서열의 존재와 남녀 차별은 이전시기까지는 유교적 가치관으로 볼 때 매우 당연한 것이었다. 이는 식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그 무렵에는 한 가족이 같은 식탁에서 식사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부계중심의 가족제도와 여성에게 가해진 엄격한 남존여비 사상에 의한 것이었고, 그 결과는 가족구성원간의 단란한 교류를 차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개항이후 점차 타파되는 경향을 띠기 시작하였다. 특히 갑오경장으로 신분계급이 폐지됨으로써, 종래에 있었던 계급간의 식생활 제한이 서서히 철폐되기 시작하였고, 서구사상의 보급에 따른 새로운 가족윤리는 가족간의 평등을 촉구하여 일부 선각자에서부터 한 식탁을 사용하는 풍조가 일기 시작하였다.(신석호 외, 1971) 극히 일부계층에 해당되는 것이었겠지만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이후 가족 내 최고 가치가 되는 가족 단란개념의 생성, 그리고 이에 합당한 공간의 성립을 가져오게 된다.

1) 가족 및 가구, 그리고 신분계층의 구성

주거는 사회적 요인과 함께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가족, 생활상의 변화와 같은 미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개항이후 전국의 인구는 590 만명, 매호당 인구수는 4.18명이었다.(이상백, 1962) 이는 부부를 비롯한 2-3명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규모로서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대가족사회라는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서울의 경우도 1903년 - 1906년 사이 한말 한성부 호적자료 분석한 연구를 보면 독신가구 5.4%, 과도적가족 2.0%, 핵가족 52.7%, 확대가족 16.8%, 복합가족 21.6%로, 핵가족의 비율이 매우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조은, 1993) 적은 자녀수는 극히 높은 영유아 사망률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짧은 수명으로 부모세대와의 공존 기간이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살아있을 확률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3세대 가족의 구성은 자연적으로 쉽지 않았었다. 가족공동체의 이념과 달리 그에 걸맞는 가족형태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현실적인 상황이 이상을 뒷받침해 줄만 하지 못함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서민계층의 열악한 주거상황이다.

개항 당시 서울의 인구는 20만 명 정도였으며, 전체 도시거주인구는 전 인구의 4%에 불과했다. 신분별 인구분포는 1858년에 이미 양반 48.6%, 상민 20.1%, 노비31.3%의 비율을 보임으로써 불과 70년 만에 신분구성이 이전(1690년에는 양반 7.8%,

상민 49.5%, 노비43.1%의 비율)에 비해 현격히 바뀌었다.(신석호 외, 1971) 그러나 이들 양반계층이 모두 경제적으로 상류층은 아니었다. 따라서 상류주택에 살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반계층으로의 이동은 단지 이념적 상승이동이었으며, 경제적 상황과는 무관하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히려 신혼 중류계층이 경제적으로는 더욱 약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신분의식이 타파되면서 계층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계층간의 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전의 양반 이하 계층의 사람들도 경제력에 따라 신분상승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이는 주로 그들의 주택을 확장하고, 치레하는 것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직업별 가족원 수 및 주거상황을 보면 표14)과 같다. 관직자와 유생의 경우 가사보조 고용인을 포함하여 한 주거공간 내 거주인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유생의 경우 와가소유 비율이나 사용면적으로 볼 때 주거상황은 관직자에 비해 열악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에게 대가족과 공동체적 생활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형이었다. 관직자와 양반계층은 가족구조 가족구조 모두 비슷한 상류층의 양상을 보인다. 이들을 제외하고 와가소유 비율과 주거면적이 가장 큰 집단은 근대적 직업을 갖는 집단으로 주거수준에 비해 적은 가족원 수, 많은 고용인 수를 보인다. 이들이 바로 신혼 중인계층으로 당시로서는 상류주택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주택을 소유하였던 집단이다.

<표 1> 직업별 가족원수와 주거상황

직업	가족원수1)	고용인 및 기구2)	가옥 내 거주인수 (1+2)	와가 소유비율	평균 사용칸수
관직자	4.4	2.4	6.8	50.7%	19.7
양반(상층)	4.1	1.6	5.6	54.0%	16.6
양반(하층)	4.1	0.8	4.8	39.5%	13.9
유생	4.1	2.8	6.9	29.2%	9.2
상인	4.1	0.4	4.5	20.3%	7.4
농민	3.9	0.0	4.0	4.2%	2.9
근대적 직업	3.7	1.9	5.5	35.8%	10.2
평균	4.2	0.4	4.6	22.1%	7.2
공업 및 기타	4.2	0.4	4.5	22.7%	3.0

3. 일상사적 측면

1) 아동, 청년, 여성이란 존재의 사회등장

개항시기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이 도입되는 시기였다. 근대적 교육기관, 공공기관, 서비스시설 등이 속속 설립되었다. 이들은 개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우선 고종31년(1894)에는 각종 교육기관의 설립이 제도화되었다. 1906년에는 보통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 역시 일상생활의 큰 변화

4) 조은(1993). 한말 서울의 가족구조. 한국 사회사연구회 편. 한국 근현대가족의 재조명. pp.32-33을 참고로 재정리

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개항 초기에는 변화된 일상 생활의 모습이 아직 일반적인 상황은 되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 당시의 이방인의 눈으로 보기에 조선에는 “남자 아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소년시절은 없어져버리고 유년기에서 곧바로 결혼해서 바로 의젓한 남자로 도약하기 때문이다.(A. H. 새비치-랜도어, 1819, 신복룡 장우영 역주, vl.19, 1999, p.81) 그러나 1910년 전국의 보통학교 수는 168개에 이르게 되면서(서울특별시, 1979) 이러한 개념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교육기관의 설립으로 서서히 생겨난 아동계층과 소년계층의 개념은 장차 이들을 위한 주거 내 독립된 공간의 등장을 예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흘러야만 했다. 역시 빈부의 차가 심했기 때문이다. 상공업의 발달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빈부의 격차는 특히 도시에서는 매우 심해졌다. 다음 글은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대조적 주거상황과 마찬가지로 계층적 대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한 아동들의 사회화는 거리에서 이루어졌다. 다음 글은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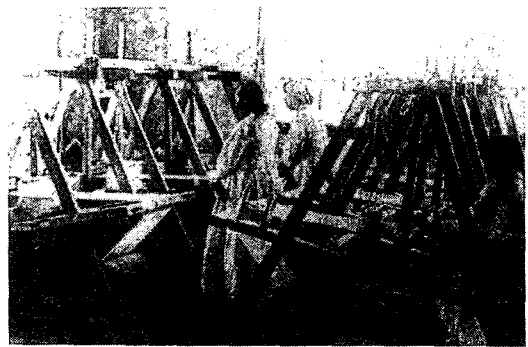
가난한 집 남자아이들은 부잣집에 물을 길어주거나 심부름을 해 끼니거리를 벌었다. 그러나 아예 장삿길로 나선 아이들도 적지 않았다. 농토를 떠나 도시로 정착한 이주민들의 많은 수는 하루하루 생계유지를 위해 이처럼 어린아이들까지 생활전선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줄지에 행상이 된 소년들은 맨발에 남루한 옷차림을 한 채 빗자루와 짚신 도는 엿을 팔러 다녔다. 그리고 여식아이들은 남의 집 아이를 업어주고 빨래도 해주는 일종의 파출부 소녀로 힘겨운 생활을 꾸려가야 했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2, p.142)

한편 잇따라 한성사범학교와 같은 교사양성기관, 관립중학교, 실업학교 등도 설립되었다. 또한 1885년 배재학당을 비롯하여 이후 이화학당,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등의 사립 고등교육기관들이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혜택 역시 아주 일부계층에나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식교육은 기독교적 서구사상을 한국사회에 급격히 전파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평등,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기독교 사상은 당시 선진적 계층이 표방하는 대표적 사회사상이 되어 보수적 봉건사회에 사상, 이념적인 큰 도전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교육기회의 확대로 이전 노동력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청, 장년층도 교육 연령기로 편입되면서 사회, 가정 내에서 “학생”이라는 새로운 위치를 부여받게 되었다. 특히 여성교육기관은 여성이 한 가족 내 가사수행인으로서의 역할로부터 벗어나서 사회구성원으로 흡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2) 공적영역의 등장과 생활시간의 변화

근대화를 꿈꾸며 대한제국이 추진한 식산흥업정책은 종래의 가내수공업을 근대적 기계공업으로 탈바꿈하는 정책으로 나아

갔다. 서구의 산업혁명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근대적 공장의 설립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였다. 전통적 농경사회와 달리 근대적 산업사회의 특징은 직장과 주거의 분리이다. 이는 근대적 직업(표1)으로 통칭되는 새로운 직업군의 등장으로 예고된다. 19세기 말경에는 방직공업, 고무공업 등이 시작되었으며 영등포 일대가 공업지대로 바뀌게 된다. 그림5(서울특별시 편, 1984, p.81)를 보면 직조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젊은 여성들을 모아 1907년에는 공업전수소를 이화동에 개설하기도 하였다.(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2) 비로소 여성이 가정이라는 장소를 떠난 곳에서 직장생활이라는 생활활동,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림5> 직조공 양성소의 모습

바야흐로 아동, 청소년, 여성은 생활의 일정 부분에서는 가정의 울타리, 물리적으로는 주거공간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었다. 하루의 대부분 시간 동안 시간, 요일의 구분 없이 주거공간의 반경 내에서 행해졌던 일상사들은 “학생”과 “직장인”의 등장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이관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거주인에 의한 주거공간의 점유는 하루일과, 주중 및 주말 등의 시간적 구분에 따라 주기성을 갖고 각기 상이하게 전개되기 시작한다. 일상생활, 학업 및 생업생활, 여가생활에 대한 생활시간 구분이 비로소 생긴 것인데, 다음과 같은 배재학당의 하루 일과는 농경사회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시간개념을 잘 설명된다. 학교라는 제도권을 주축으로 하여 아동계층이 형성되고, 하루 생활의 주기가 규칙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주거의 반경을 떠난 공공영역에서의 생활시간이 확대되는 것이다.

수업은 오전 8시 15분에서 11시 30분까지, 오후는 1시에서 4시까지로 하고 일요일은 모든 일을 쉬며, 점심은 11시 45분에 마치고 저녁식사는 5시에서 6시까지 마치고, 해가 지면 제방에서 공부를 하여 밤 10시 이후에 등불을 끄도록 하였다.(서울특별시 편, 1979, vl.3, pp.649-650)

우리나라에 공공의 공원이 생긴 것은 1889년의 만국공원이 최초이며, 이후 서울에는 1896년에는 과교다공원이 조성되었다. 공원이라는 공적영역에서의 여가생활은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과거 주생활의 일부 기능이 광역으로 확장, 분배되어 공공영역

으로 편입되어 가는 하나의 예이다. 이것은 분명히 사적영역에서의 일상생활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자동차, 기차, 전차의 등장은 이전과 다른 문화적 소통과 시-공간개념의 새로운 정립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혜원과 같은 의료시설, 새로운 종교생활을 위한 종교시설 등도 건설되었다. 이 역시 이전 주거공간 및 그 주변 외부공간에서 행해졌던 사회화 과정을 수용하는 많은 행위들이 공적 영역으로 이관되어 가는 것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먹고, 자는 곳으로서의 주거의 기능, 그리고 가족단위이라는 중요 휴식의 기능, 즉 사적 생활이 더욱 중요시되는 그 시발점에 개항기의 주거가 있는 것이다.

3) 합리성과 위생관념

근대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그림6(동화일보사 편, 1978)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전 서당에서 무릎을 꿇고 훈장님의 말씀을 듣던 모습과는 달리 모두 의자에 앉아있다. 공공영역에서부터 입식의 생활이 전개된 것이다. 이전 최상류 계층에서만 누렸던 의자의 사용이 보통의 사람들, 학생들에게까지 일반화되었다. 이후에는 주거공간에 도 입식 생활이



<그림6> 보통학교의 수업광경

점차 침투하게 된다. 당시의 선진 의식, 개화의식은 신교육, 신문물, 양풍의 채택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전통적인 것들은 타파해야 할 구식의 잔재로 치부되었다. 좌식생활 역시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비능률적인 전근대적 생활

방식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안락의 좌식, 입식 생활의 이중성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후의 주택개량론자들은 입식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게 된다.

소위 문명이라고 하는 여러 이기들은 이시기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전기는 1884년, 전화는 1898년에 도입되었다. 그리고 도시에는 상, 하수도과 같은 기반 시설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일상생활과 그 의식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서울의 상수도시설은 1906년 처음 도입되었는데, 1912년 당시 상수도사용 호수는 18,033호, (조선인 10,013호, 일본인 7,981호, 기타 외국인 39호)로서, 총 호수 대 급수율은 32.1%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우물물을 사용하는 호수가 53.4%, 하천수를 사용하는 호수가 14.4%를 차지하고 있다.(서울특별시 편, 1979, vl.3) 상수도라 할지라도 오늘날과 같이 각각의 가정에 수도꼭지가 달린 형식이 아니고 급수전을 구역별로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한 형식이었다. 수도의 보급은 이후 언제부터인가 각 주택에서 부엌 내 물동이가 사라졌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위생에 대한 개념이 수도의 공급으로부터 시작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위생관념의 생성은 문명화 과

정에서의 중요한 단계이다. 이는 이후 계몽주의적 시각에서 주택개량을 논할 때 주요 사안으로 다루어진다. 실제로 중인주택의 경우는 주택을 개조하여 목욕탕을 들이는 사례가 이 시기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 글을 보면 당시의 보통사람들의 위생관념은 일반적으로 매우 희박했던 것 같다.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볼 때 조선 사람들은 화장실 시설에 있어서는 매우 불충분하다. 목욕탕은 거의 없으며, 더운 여름이 되어 강이나 바다에 들어가는 경우 이외에는 물에 잠기는 일이 흔치 않다. 1876년 일본인들이 조약 체결의 작업을 할 당시 그들은 배에 있는 목욕탕을 해안으로 내려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구리로 된 대야에 물을 담아 아침 세수를 한다. 하멜이 말한 바와 같이 이처럼 불을 멀리하게 되자 최하층 계급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살결이 백인과 흑인사이의 뜨기처럼 보인다.(W.E. 그리피스, 1882, 신복룡 역, 1999, vl.3, p.352)

이쯤 되니 집안에 세면장과 욕실의 개념이 있을 리 만무하다. 아침세수는 주로 방에서 하게 되니 방이라는 공간은 식, 침, 여가행위와 위생 행위가 한꺼번에 수용하는 다목적 공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목욕탕을 들이는 것은 그 당시 배우 선구자적인 획기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일본의 목욕문화를 모방하는 왜곡된 선구자 의식의 과시였을 수도 있다. 위생이라는 기능이 방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4. 물리적 측면

개항 전 가정의 조명은 기름을 주로 쓰는 등잔이었다. 석유와 램프가 도입된 것은 1880년경이었으며, 대중적인 조명수단으로 각광받았다. 전기시설은 1884년 경복궁에 처음 들어왔고, 가정에서의 조명은 우선적으로 일인들의 주택에 보급되었다. 민간의 가정등은 처음 진고개의 일본상인들이 사용하였는데, 1900년 일인주택에서는 그 사용가정 수가 600호 정도 되었다고 한다. 1909년에는 전등수가 급격히 늘어나 8000여 등에 이르게 되었다. 가스는 조명용과 연료용으로 도입되었다. 1909년에는 일한가스주식회사가 설립되어 914호의 가정에 인입공사를 하였는데,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대학원 동창회 자료집) 각 가정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시기에 도입된 이러한 문명의 이기들은 이후의 주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가 되었다. 특히 연료의 변화는 이후 주택의 구조변화에 획기적 변혁을 가져온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생산방식의 도입은 빼놓을 수 없는 점이다. 근대적 기술의 적용과 새로운 건축자재들의 사용은 초기에는 주로 개항장을 중심으로 일본인과 청국인들의 주택건축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새로운 건축자재는 수입에 의존하였는데, 주로 목재와 벽돌, 그리고 유리, 시멘트 석회 등이었다. 또한 이후 설립된 벽돌, 기와공장에서도 나오는 자재들도 외국인 주택, 관공서 및 학교, 종교건축물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1910년 당시 한국 내 벽돌공장과 기와공장의 수는 각각

7곳과 12곳에 불과했다.(김태영, 1991, p.34) 이러한 재료들이 이 당시 한국인들의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된 예는 없다. 즉 그때까지 주거의 외형적인 변화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한 재료들은 도입 초기에는 주택용으로 사용하기에 비용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주거건축 외에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새로운 형태의 건물들은 주생활 경험이 아닌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방의 대상이 되었다.

서구의 발달한 문물은 기술적 우수함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개화사상이 널리 퍼진 시기에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생활방식이나 습속 등의 수용은 내면적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외부의 것을 받아들일 때는 문화적 충돌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외형적인 것의 수용은 문화적 갈등은 유발하지 않으므로 좀 더 관용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근대적 재료가 이후 주택건축으로 확산되어 사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특히 서양인들은 화장, 카페트, 벽지와 같은 실내장식재와 침대 소파, 의자 등과 같은 가구, 그리고 유리창호, 회벽 천장장식, 벽난로, 주방기기 등도 들어왔다.(김태영, 1991) 새로운 실내공간의 도입은 한국인의 눈에는 생소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한 인상을 심어주면서 결국 한국인의 생활상에 큰 변화를 몰고 오는 데 한 몫을 하였다.

III. 개항기 계층별 주거공간에 있어서의 근대성 발현

문명화를 표방하는 근대화의 물결은 도시로부터 시작하여 농촌으로, 상류계층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류 계층으로 확산되는 성격을 갖는다. 이는 시간적인 경과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근대화의 초기 우리나라에서 그 변화의 조짐은 서울, 그 중에서도 상류계층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이 시대의 주거는 계층별, 지역별로 그 변화의 작용정도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상류계층 주거의 변화의 조짐, 그리고 미미한 변화를 보이는 중류계층의 주거, 그리고 아직 근대화로의 첫걸음조차 요원한 서민계층 주거가 공존하는 것이다. 이 때 주거소비자의 계층 구분은 이전시대까지 신분법에 의해 구분되었던 것이 타파된 이상 시장경제, 소비경제, 공업화의 물결 속에서 경제적인 차이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계층별 주거를 사례별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1. 상류계층의 주택

1) 일반적 묘사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대부분의 전통주거의 유구가 이 계층의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통주거를 논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양반계층은 지금의 수준과 비교해 보아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주거문화를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건축적, 의장적, 구조적 아름다움은 우리 주거문화를

외형적으로 논할 때 특히 부각되는 측면이다. 외국인으로서 상류사회와 접촉을 많이 한 W.E. 그리피스의 역사서 <은자의 나라 한국>에는 다음과 같은 묘사가 있다. 매우 기품 있고 고급스러운 실내장식의 분위기는 앞서 해세 바르텍이 묘사한 민중들의 주거상황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벽은 방바닥으로부터 색깔 있는 벽지에 이르기까지 훌륭하게 치장되어있다. 조선의 벽지는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어느 것은 비단처럼 부드럽고 어느 것은 도화지처럼 딱딱하다. <새벽>이라 함은 질이 좋은 붉은 흙이나 회를 바르는 것을 말하는데 흰색 그대로의 질은 초벽 위에 발라 그대로 벽의 색깔을 나타내는 구실을 한다.창문은 네모꼴이며 안이나 바깥쪽으로 살을 대었고 기름을 먹었거나 먹이지 않은 거친 종이를 바른다. 어느 곳에서나 유용하게 사용되는 대나무를 잘게 쪼개어 만든 발은 창 의 장식을 매우 다양하게 꾸며주고 있다. 문은 나무나 종이 또는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다. 우리는 아직도 조선의 평민사회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장식품이다. 심지어는 상류사회에서도 오히려 신기하게만 보일 따름이다.(W. E. 그리피스, 1882, 신복룡 역, ul.3, 1999, p.149)

또 다른 이의 경험은 이렇다. 이미 서구의 입식생활이 침투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서양의 가구도 이때 소개되었다.

수도에 거주하는 몇몇 부자들은 외국인의 집에서 본 스프링 침대에 넋을 빼앗겨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그와 같은 침대를 구입했다. 중국인과 일본인이 운영하는 수도의 상점에는 각종 수입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G. W. 길모어, 1892, 신복룡 역주, 1999, ul.17, p.188)

2) 서울지방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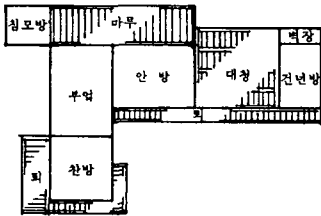
당시 상류주택은 장인과 기술자를 동원하여 매우 우수한 건축기술과 재료를 갖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례가 그 어느 계층의 사례보다 훨씬 많다. 당시 상류주택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조선의 양반계층의 주택형식을 유지한다. 그러나 간간이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는 경우도 보여 역시 “새롭고 좋은 것의 도입”이라는 변화의 흐름에 빠르게 발맞추는 경향을 보인다. 서구화에 상당히 직설적으로 접근하는 양상을 띤다. 당시 최상류층이었던 민영준(민영회의 초명)의 집에 초대 받았던 새비치-랜도어의 경험은 다음과 같다.

나는 항상 이 나라의 관습을 따라왔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으려고 했다. 그러나 언제인가 영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민영준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방은 유럽풍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이 분위기에는 잘 맞지 않게 두 개의 중국의자와 책상이 있었다.(A. H. 새비치-랜도어, 1819, 신복룡 외 역주, 1999, ul.19, p.162)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서양의 주거 및 주생활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것이다. 그는 서양의 경우 여러 종류의 방이 있음을 밝히는데, 침실, 식당, 욕실, 객실 등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각 실의 기능이 세분화된 점, 기능이 전용화된 점을 인식

하였던 것이다. 또한 식당을 가족단위의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때까지 유교사상과 농본주의 경제구조의 뒷받침을 받고 이루어진 가장의 권위 확립과 부녀자의 귀속적 지위로 특징지어진 가족제도상의 문제점을 아울러 제기하였다.(김순일, 1982) 이는 상당히 진보된 근대적 개념으로서 이후 활발히 논의되는 주택개량론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논의가 그 당시에는 최상류 계층만이 접할 수 있었던 극히 일부 사람들의 이상적 관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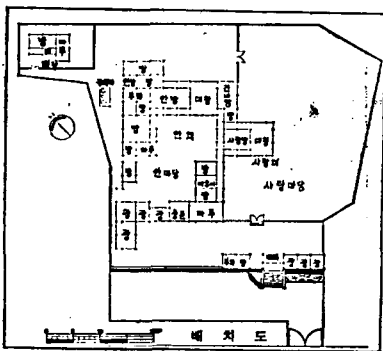
그림7(주남철, 1994, p.120)의 한말 군부대신인 견지동 윤운렬가(1884년전후 건축 추정)를 살펴보면 안마당에 자리 잡은 안채에서 안방, 대청, 건너방이 일렬로 남향한,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평면형을 취하고 있다. 이전까지 전형적인 서울지방의 평면형은 부엌, 안방, 대청이 ㄱ자형을 이루는 것이었다. 과거 서울지방의 전형적인 주택에서 안방, 즉 여성의 공간은 평면의 꺾인 부분에 위치하여 매우 깊숙이 들어앉혀 있었다. 이러한 공간이



<그림7> 견지동 윤운렬가의 안채

밝은 햇살을 받는 남향으로, 마당을 향한 위치로 자리를 바꾼 것이다. 아마도 후일 전면으로 나서는 여성의 위치를 예고한다. 오늘날 우리가 주택에서 거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치는 안방 -여성의 공간- 이 무조건 남향을 향해야한다고 의식이 강하게 된 것을 보면 그 당시 안방의 전면 등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회동 최씨가(이전 백린제가, 1874년 건축)역시 비슷한 구조로 안방이 전면 남향을 취하고 있다.(그림8)(서울특별시 편, 1979, vl.3, p.1174) 이 주택은 윤운렬가보다 이전 시기의 주택이지만 더욱 특이할만한 구조를 갖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 중문간채가 복도로 연결되어있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 한옥의 특징인 채의 분화가 사라지는 모습이다. 특히 안채와 사랑채를 연결한 것은 남성과 여성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였던 이전의 형식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사랑마당과 안마당은 그래도 이 경우에도 아직까지 분리되어 있다.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이 통합되는 것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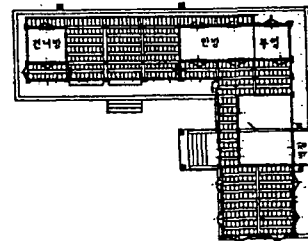


<그림8> 가회동 최씨가

만 아니라 이 두 공간은 같은 레벨상에 위치하게 된다. 주택에서 엄격히 나타났던 남녀유별 개념, 나아가 남존여비의 개념까지도 희미해져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채와 채의 연결은 기능적 편리성을 염두에 둔 근대로 향

하는 하나의 새로운 시도인 듯하다. 채와 채를 오가면서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 하면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번갈아 경험하는 전통주택에서의 주생활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매우 비기능적이고 불합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때 채로 분화된 공간적 아름다움은 별개의 문제였을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생활을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에서도 한번 외출하고 돌아온 후 집안 내에서 기거할 때 바깥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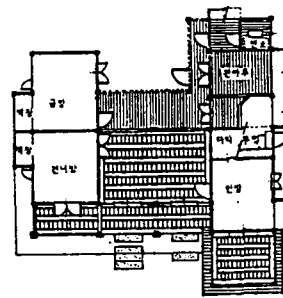
안채와 사랑채의 평면은 물론이고 안마당과 사랑마당이 구별 없이 통합되어 지어진 사례로는 사직동 정재문가(1900년대 건축 추정)를 들 수 있다. 그림9(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대학원동창회 편, p.23)를 보면 부엌, 안방, 대청, 건너방으로 이루어진 안채부분에 덧붙여진 또 하나의 대청이 있다. 이 대청을 사이에 두고 사랑방, 대청이 ㄱ자를 이루며 붙어 지어져 있다. 안채공간과 사랑공간 사이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이 작은 대청은 식사용 마루로 추측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남녀구별 없이 한 공간에서 식사하게 되는 변화된 습속을 반영한다. 여성과 남성의 분리, 노동하는 자로서 여성의 역할 규정, 상하계층의식 등



<그림9> 사직동 정재문가

으로 가정 내 사회적 약자를 규정하고 억압하였던 봉건적 관념이 타파되는 것이다. 이는 매우 괄목할 만한 변화이다. 더욱이 부엌과 바로 연결되어있어 기능상의 편리함도 추구하였다. 과거 채와 채가 분리되었을 때 가장 불편한 주생활을 겪어야 했던 것은 여성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이 주택에서는 안채로, 사랑채로 마당을 통해서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 하며 밥상, 세숫대야를 날랐던 여성들의 수고가 반의반으로 경감되었을 것이다. 기능적 합리화의 추구하고 함께 평등이라는 근대화의 큰 줄기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문명화이론에 따르면 "합리화과정 자체와 사회적 터부의 합리적 형상화 및 정당화는 본능과 감정뿐만 아니라 의식과 반성의 수준을 포함한 전체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진화과정의 한 측면이다."(노르베르트 엘리아스, 1976, 박미애 역, vl.II, 2000, p.423)



<그림10> 성북동 이태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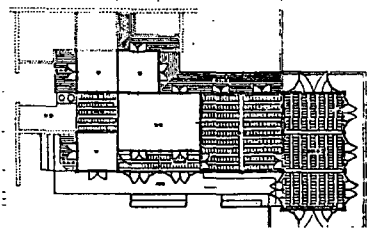
이러한 사례는 성북동 이태현가(1900년대 추정)에서도 볼 수 있다.(그림10,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대학원동창회 편, p.23) 이 주택에서는 부엌에 찬마루가 딸려있다. 이곳에서는 앉아서 음식도 만들고 식사도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로써 부엌은 차츰 노동만 하는 외부공간이 아닌 내부공

간의 성격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이 공간은 노동 외에도 거주, 기거, 머무름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다. 더욱 특이할만한 점은 복도를 통해 연결된 변소이다. 축간이라 하여 거주의 공간과는 별개로 멀찌감치 떨어져 자리 잡았던 공간이 본체에 붙게 된 것이다. 여기서도 기능적 편리성, 합리성 추구의 욕구가 확연히 드러난다.

한편, 정재문가의 사랑채 전면에는 현관이 자리 잡고 있다. 현관은 계단 밖으로 초석을 두 개 세우고 이 위에 독립주를 세워 돌출된 팔각지붕을 받치고 있는 형태이다. 입면을 보면 마치 서양 주택의 포치부분을 보는 것 같다. 이는 일본식과 양식의 영향을 받은 모습으로서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과감한 시도였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안채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는 유리로 된 미세기 분합문을, 사랑채는 용자살의 유리창을 달았다. 아마 보온을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이 집의 주인은 상당한 경제수준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 당시 유리란 것이 외국인의 눈에만은 다음과 같이 비취졌을 정도로 매우 값비싸고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가장이 유리를 한 조각 얻어서 창이나 미닫이에 끼워 넣고 은자의 구멍을 통해 바깥세상을 관조할 수만 있다면 그 집안의 즐거움은 최고조에 이른다. 이제는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손가락으로 창호지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역겨운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 밖에 서있는 하인들을 불러들여서 자기의 생활이 노출되는 일도 없게 되었다. 완전한 유리 한 장을 끼웠을 경우 주인의 가슴속에 흐뭇함과 자랑스러움이 어느 정도이라는 것은 이루 표현하기 어렵다.(W.E. 그리피스, 1882, 신부록 역, vL3, 1999, p.3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류계층의 주택에서는 대청, 사랑 등에 유리분합문과 유리 미세기를 단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 이것으로 보아 주거수준의 계층간 격차는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림 11> 성북동 이재준가

큰 주택이 안채와 사랑채 전면에 유리 덧문을 한 것과 달리 대청에 미세기 유리창을 단 사례는 성북동 이재준가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대청을 거실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하나의 시도였던 것 같다. 대청이 반외부공간에서 내부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주택은 대청의 면적이 상당히 크게 계획되어 있다. 그곳에서의 어떠한 행위, 아마도 단란 및 사교행위가 매우 활성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서 여름의 기거를 위한 대청은 내부공간화 되면서 사철 기거가 가능한 거실공간의 개념으로 바뀐다.⁵⁾ 이 정도의 수준을 누린 사람들

5) 상류주택의 경우 유리를 사용한 예는 이밖에도 예지동 차씨가, 가회동 백린제가, 원서동 백홍범가 등이 있다.

이 채를 나누어 지을 만큼의 경제적 여력이 없었을 리는 만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채로 주거공간을 구성한 것을 보면 상당히 선진적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 같다. 이 외에도 하나의 채로 구성되고 복도로 연결된 예는 와룡동 김씨가가 있다.

이 밖에도 상류주택은 곳곳에서 인습의 타파를 시도한 것이 눈에 띈다. 솥을대문을 굳이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삼청동 심씨가), 상류주택이면서도 사당을 건축하지 않은 예는 흔하다. 이는 과시적, 형식적인 것보다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실학사상을 배경으로 기존의 전통적 주택에 근대적 개념이 접목되는 일련의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통적인 주택의 형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들을 시도한 사례들도 있지만 서구의 주택유형과 주생활 모두를 직접적으로 채용한 주택들도 있었다. 실제 극히 일부 조선인들이 이러한 주택에서도 살았으리라는 정황도 곳곳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이 살았던 양식 주택으로는 대원군의 손자인 이준용 소유의 운현궁 내 양옥과 윤비의 백부 윤덕영의 별장이 대표적이다. 윤덕영 별장은 프렌치, 르네상스식으로 석재를 혼용한 벽돌 2층 건물이다. 또한 민경호의 주택은 서양식으로 내부공간을 개조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이들 주택에서의 생활과 전통적 생활양식과의 갈등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양 궁정사회의 엄격한 의례와 신생활이 개항을 계기로 함께 유입되었을 것이며, 이는 자생적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근대화에 대한 열망과 선진문물에 대한 동경에 연유한 수동적 수용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갈등보다는 당위성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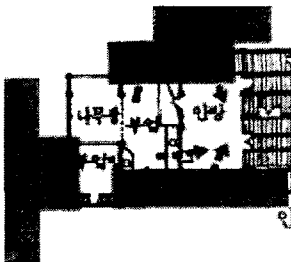
3) 지방

외부와의 교통이 어느 정도 있었을 지방 상류계층의 주거, 즉 부농주거라고 일컬어지는 사례를 보면 서울, 또는 개항장이 있던 도시주택들과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원형으로부터 변형된 모습, 그리고 나름대로 변화의 양상을 조금씩 보인다. 경제력과 시장경제에서의 부를 추구하는 생활태도의 변화가 보수적 농촌 주택에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들은 도시의 중언계급과 마찬가지로 신분상은 농민계층이면서도 발달된 농업기술과 토지를 기반으로 축적된 부를 과시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역시 신분타파였다. 이들은 높은 담, 솥을대문, 누마루설치 등으로 상류계층의 주거를 모방하면서 그에 못지 않은 체면치레와 권위를 지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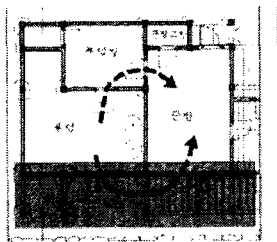
영호남지역의 부농가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문세이, 홍승재, 2002) 안채는 더 이상 폐쇄적인 은둔의 공간이 아니다. 농업생산방식의 발달과 농업의 상업화와 이에 따른 생산력의 증가로 생업은 주거 내의 일상사로까지 침투하게 되었다. 농, 가사작업이 증가하고, 고용인에 대한 식사수발등의 노동이 늘어나고, 농업경영상 접대해야하는 손님이 많아진 것이다. 또한 주거공간은 작업장과 수장공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이러한 생산 및 부수적 행위는 일상사와 혼재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안주인

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역할수행의 주도자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안채공간은 개방될 수밖에 없었다. 농업의 근대화는 생산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다. 주생활, 엄밀히 말하면 주거 내 생산, 재생산 생활의 전면에 적극적으로 여성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는 주거공간 중 안채가 생활활동을 계기로 사회화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선적으로 가사작업공간의 합리화로 전개된다. 이 당시 지어진 주택들 중 나주 흥기응 가옥에서는 부엌과 안방 사이에 문을 설치하였다. 여성의 가사노동에 있어서 동선을 단축시키고자 한 배려이다. 그리고 보성 문형식 가옥에서는 부엌의 바닥높이가 외부지면과 같은 구조를 갖추었다. 이 역시 여성가사활동의 편리함을 고려한 하나의 예이다. 부엌은 안방 및 외부공간과 단절된 소외의 공간이 아닌, 생활의 중심이 되는 각 공간과 원활히 연계된 공간으로 평가절상된 것이다. 또한 근대부농가의 여러 사례에서는 평면계획에서 전퇴가 발달하는데 이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통로의 발달은 분화된 채가 아닌 한 건물 내에서 주생활이 완결될 수 있는 근대적 요소가 된다. 이는 도시주거에서 채와 채를 복도로 연결한 것과 견줄 수 있다.(그림 12-1, 12-2, 문세이, 홍승재, 2002, pp.74-75)6)



<그림 12-1> 나주 흥기응가의 부엌과 안방



<그림 12-1> 보성 문형식가의 안방과 부엌

2. 중류계층의 주택

직업사회와 시민사회의 초기로 진입하면서 한국사회는 중류계층이라는 이전보다 두터운 층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들은 산업과 생산의 새로운 주체로서 상류계층보다는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경제력, 권력, 영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들의 취향, 생활수준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점점 높아지게 된 것이다. <표1>에서 보았듯이 관직자와 양반계층을 제외하고 와가소유 비율이

6) 또한 부농주거는 간의 분화, 대형화를 통하여 확장된 공간의 양을 얻었고, 가공화, 장식화를 통해 질을 획득하여 근대화에 대한 욕구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김봉렬은 근대 부농주택이 많은 발전적 내용, 근대지향적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그 이중적 세계관, 형식과 내용의 갈등, 봉건성과 근대지향성의 동시 추구 등 대립적 구도를 통일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대주거건축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김봉렬, 1982, p.40, p.99, p.104)

가장 높은 계층은 근대적직업을 가진 이들이다. 통계에는 잡히지 않은 상업계층 역시 이 직업군에 편입되어있을 것이다. 특히 할만한 것은 고용인을 제외한 이들의 가족구조인데 소가족형태를 띤다. 유교적 전통 가족 윤리와는 다른 새로운 가족윤리가 계층을 시작으로 탄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류계층은 주택의 외형변화에 있어서 가장 과감한 시도를 하였다. 갑오경장을 계기로 신분제도의 철폐는 신흥 중류계층이 상류주택에 대한 선망과 모방화를 현실화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가사규제가 풀린 것이다. 따라서 상공업으로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기존 건물을 증, 개축하거나 신축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는 대부분 주택의 규모확대를 동반하였다.

개축의 대표적 사례는 평대문을 이전 시기에 양반에게만 허용되었던 솟을대문으로 고치는 것이었다. 이는 분명 과시적 자기만족이며 주택을 매개체로 한 신분상승 요구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중류층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고, 기단, 도리, 소로를 채용하며 기단에 널보석을 사용하는 등(박혁, 진정, 1997) 형태와 장식에 있어서 유난히 상류층지향적인 속성을 보인다. 그러나 형식적인 부분과는 달리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류계층의 변화되는 모습과는 달리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모방화 경향(Karnacher, 1980)은 특별한 주거문화에 대한 의식이 형성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때 주거공간 내 가구 및 설비, 치장에 대한 관심은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 사당을 개축해 목욕탕을 들인 사례는 설비에 대한 과감한 관심의 표현이다. 주거는 취침, 식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자기표현, 자아실현, 지위과시의 수단으로서의 그 의미를 추가하게 된다. 이전까지 상류계층에게만 해당되었던 이러한 주거의 의미가 그 이하 계층에게까지 확산된 것이다. 그러나 중류계층의 주택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넘어야 할 단계, 즉 의식이 혁신적으로 진보되는 단계로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 나타난 신흥 상인계층의 새로운 주택유형으로는 아래층은 점포, 위층은 살림집으로 사용하는 소위 주상복합의 형태인 이층 한옥상가가 있다. 1900년대 중엽부터 종로와 남대문로를 중심으로 출현한 한, 양 절충식, 또는 한, 일 절충식의 이층 한옥상가가 그것이다. 이는 도시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지가의 상승, 과밀화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였다. 한옥의 중층화는 원천적으로 공간 확장의 필요성에 의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는 궁궐 기술자의 참여로 기술적인 면이 해결되면서 실현가능해진 것이었다. 이층 한옥상가는 궁궐 내 근대건축물의 공사에서 물러나게 된 장인들이 눈썰미로 보고 익힌 서양식 건축요소들을 주거건축에 적용한 것이었다.(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1999) 이 때 궁궐건축에서 쌓은 기술이 하위계층에게까지 전파되면서 한옥의 획기적인 유형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근대라는 물결에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상인계층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이층 한옥상가는 외형적 변화만을 추구하였다는 점에

서 서구나 일본에 대한 식문화 경향, 양식의 모방, 그리고 동화에 대한 욕구의 산물로 여겨진다.

이전까지 기술자에 의한 주택건축은 상류계층의 주택에만 해당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층 한옥상가는 민중의 주택에 있어서도 건축생산의 주체가 사용자 자신, 또는 안면 있는 주변사람이었던 것으로부터 전문가, 즉 직업적 기술자라는 제3자에게로 넘어가는 계기가 된다. 이후 소위 집장사라는 주택의 건설과 공급의 주체가 출현한다. 주택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3. 서민계층의 주택

1) 서울

서민들의 주택은 그때까지 문화적인 영향보다는 기후라는 외부환경의 영향, 기술과 재료라는 물리적 요인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개항시기까지도 서민주택은 그 동안 지속되어 왔던 전통적 유형을 대부분 답습하고 있다. 새로운 문화와 생활양식을 수용하는 것은 이 계층에게는 시기상조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실학으로 대두된 실사구시의 사상적 배경은 선각자들을 중심으로 근대적 의식의 근간이 되는 합리성과 기능성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는 실생활, 그 중 하나인 주생활에 대한 관심과 반성도 포함된다. 당연히 그때까지 일반 서민이하 계층들의 일상적인 봉건적 주거생활에 대한 비판의식과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반성이 대두된 것이다.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는 주거문제에 대한 계몽적 성격의 글이 종종 실렸다. 예를 들어 주거의 기본적 요건인 일조, 통풍, 위생 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상류주택이 아닌 서민주택, 또는 하류계층의 주택을 그 대상으로 하여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위생에 관해서는 일식주택에서와 같은 변소와 욕실설비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이러한 위생에 대한 논의는 이후 주택개발론자들에 의해 더욱 활발히 전개되는데 이 시기는 그 논의의 출발선상에 있었다는데 그 의의를 둔다. 위생에 대한 관념은 문명화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개화의 서구자적인 유길준은 서양주택을 보고 난 후 물리적 요건뿐만 아니라 각 실별로 기능이 분화된 점, 개성적 주생활, 단란공간으로서의 식당이 가져오는 여성지위의 향상과 같은 점을 거론하였는데, 그 당시까지 봉건적 가치관이 지배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무척 앞선 자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거론을 논하기에는 당시의 사람들의 양식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아직은 수준 높은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공간의 내면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한참 후의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본격화된다. 그러나 그 시대에 그에 의해서 처음으로 거론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우리의 주택이 모두 단층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 특히 노기승은 그 때의 도시주택이 인동간격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데다가 뒷뜰도 갖추지 못한 형편으로 쓰고 있다. 당

시의 사진을 보면 도로에 붙여서 연달아 지어지는 도시주택의 원형이 나타난다. 이미 택지의 협소함으로 인한 과밀과 외부공간의 부족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도시화와 도시문제가 다중주택 내지는 새로운 주택유형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김순일, 1982) 비로소 주거를 도시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집합체로 인식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일본주택의 상수도 설비를 소개하면서 동경과 같은 도시에서는 지하로 수도를 끌어 부뚜막에 이르게 하였는데 용수가 흠족하다고 하였다. 이는 도시화의 문제와 함께 위생을 염두에 둔 도시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 지방

도시화, 서구화의 물결로부터 한 발자국 물러난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은 주거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외부의 영향이 들어오더라도 도시에서 한번 겪은 후라서 그 충격은 많이 완화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그 변화는 시간적으로는 도시보다 늦게, 속도는 도시보다는 느리게 진전되었을 것이다. 한편 느린 변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자체적 요구에 의한 -외부의 압력이 아닌- 자생적일 것이라는 유추를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요구가 기존의 전통적 가치 및 습속과 부딪치고, 서로 동화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 반, 합의 메커니즘이 도시주거보다는 더욱 원활히 작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 도시화, 근대화의 물결이 미치지 않았던 농촌은 개항시기에도 농경위주의 산업 및 소비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생활양식과 일상사 역시 전근대적 구조 그대로였던 것이다.

이들 지방소재 주택들은 지역별로 - 그 중에서도 특히 서민주택들은 - 특유의 오랜 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한 특색이다. 이들 주거의 원형은 그 시대까지도 자연기후에 더욱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지방 특유의 토속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 당시 지어진 서민주택의 유구는 오늘날에도 많이 남아 있겠으나 지어진 서민주거이니 만큼 건립연대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정확한 시대추정이 어렵다. 많은 자료에서 다만 시기에 관계없이 지역별 서민주거로 일괄적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 언제 지어졌던 시기에 상관없이 다만 지역별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지방 서민주거의 특징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도 그때까지의 시기적 변화의 특징은 별반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시기라는 것이 주요 관심의 초점은 아닌 것이다. 이로써 지방의 서민주거는 개항시기에도 별 변화가 없었으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4. 하류계층의 주택

우리가 흔히 한국의 주택을 논할 때는 주로 상류계층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음 글과 같은 소외계층의 주거도 엄연히 존재하였다.

사대문안, 특히 북촌은 지세 높은 양반들의 집이어서 기와집이 연이어 있었다. 그러나 사대문 밖으로 나서는 초라한 초가집과 남루한 모습들의 빈민이 어울려 있었다. 농촌의 빈농들과 무토지민은 남부여대하고 사대문 안으로 모여들었다. 어쩌다 도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사대문 어귀나 밖, 또는 산중 자연의 바위 위에 초가집이나 토막집을 짓고 살았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주로 낮에는 도성 내에서 지계를 지거나 온갖 잡일을 하고, 밤이면 돌아와 초가집에서 하루의 허기와 피로를 달래었다. 이들에게 한양의 풍요는 너무나 멀리 있었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2, p.306)

알렌박사의 견문기를 보면 당시의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비판도 신랄하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의 상황도 함께 묘사한다. 상류주택의 고급스러움에 비하면 민중들의 주거의 실상은 상당히 열악하다. 냄새에 대한 과민함의 정도, 프라이버시 개념의 생성 정도가 문화의 척도라면 이들의 상황은 분명 비문명의 표본이다.

대문이나 문의 주된 장식물로서는 다음 해 밭과 논같이할 때 대비하여 퇴비를 만들려고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지저분한 시궁창 구멍이 있다. 조선 사람들은 오랜 경험으로 이런 냄새에 익숙하다. 그러나 그들은 사방 8피트의 작은 침실에서 이 해로운 공기를 어떻게 호흡하며 이 작은 방에 불을 때고 6 내지 8명이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생명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지 매우 놀라운 일이다.(H.N 알렌, 1908, 신북룡 역, 1979, pp.109-110)

당시 평균 가족구성원 수(가옥 내 비혈연 동거인 제외)가 4.04명 인 것과 비교해 보면 6내지 8명은 대단한 대가족이거나 확대가족이다. 주거 내 동거 친족원의 수가 많기는 하지만 표1을 보면 가옥 내 거주인구가 6명을 넘은 경우는 관직자나 유생 계층이다. 관직자 계층이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았을 리는 없고, 많은 기구와 동거인 식물을 거느렸으나 경제적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은 유생계층일 수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에 잡히지 않은 또 다른 계층이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도시빈민을 형성하는 하류 계층이다. 한말 한성부의 가족유형을 분석한 자료(조은 1993)에 의하면 이들 상당수가 21.6%를 차지하는 확대가족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확대가족은 여러 쌍의 부부와 어린아이, 친척들로 구성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말 그대로 비가리고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절실했던 계층인 것이다. 이러한 초과밀의 상황에서는 부부유별, 장유유서와 같은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에도, 밀려오는 신생활의 조류에도 관심을 지닐 여력이 없었을 것이며, 그 당시 이러한 계층에게 주거란 생존의 조건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5. 외국인주택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주해 오기 시작한 것은 대한제국 말엽 1890년 이후이다. 거주지에서는 토지점유, 건축

및 주거의 자유가 보장되어 외국인들은 자국의 양식으로 건축물들을 짓기 시작하였다. 개항과 함께 유입된 외국인들은 자국의 주거양식을 이 땅에 이식하기 시작하여, 개항장에는 한식, 양식주택과 함께 일식, 또는 한, 일 절충식, 일, 양 절충식의 주거형태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일인주택은 양적으로 급격히 늘어나 부산의 경우 개항초기에 이미 일본의 소도시처럼 변화해버린 것 같은 양상을 보인다.(문홍길, 1982) 이 때의 일식주택은 한일합방 후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이후 상당기간까지 남아서 한국인의 주거형태의 일부로 자리 잡았었다.

또한 외국인거류지에는 한옥을 개조하여 의원, 종교시설, 학당 등과 주거가 결합된, 형식적으로도 한, 양식이 절충된 형태의 주거건축이 등장하였다. 주택의 외양은 초기에는 한옥의 양식을 많이 따랐으나 점차 구조적인 변화를 겪게 되어, 전돌과 흑회색 벽돌을 사용한 목골조, 후기 르네상스식의 목조 의양풍, 회반죽 마감의 일본식 목조, 벽돌조와 목조지붕으로 된 중국식 벽돌조 등이 등장하였다. 또한 상하 오르내리창, 양판덧문, 차양, 발코니 궁형아치 등의 서양식 의장이 선보였다.(김정신, 2001, p.55) 따라서 외국인 주거지에는 그 전통적 경관이 사라짐은 물론이고, 주택의 형식 및 의장도 양식적으로 절충되는 혼란스러운 과도기적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면 한옥의 외관을 유지하면서 벽돌조로 짓는 식이다.⁷⁾

개항시기에는 이 땅에 소위 “양옥”이라 불리는 서구식 주택 유형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주로 외국인 전용주택으로 그 나라의 주택유형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 개항 초기에는 개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호, 외교관, 상인들의 양식주택이 지어졌으며, 이후에는 일본을 거쳐 유입된 일, 양 절충식의 주택이 지어졌다. 개항당시 우리나라에는 1884년 인천에 지어진 최초의 양풍주택인 독일인 숙소 세창양행 사택을 시작으로 알렌박사 별장, 모스저택, 제임스 존스턴 별장, 오례당주택 등이 서양주택으로는 계속 지어지게 되나, 1905년 통감부 설치 후 사라지게 된다.(김선재, 1987) 제임스 존스턴 별장은 석조 2층이며, 그 외에는 주로 벽돌식 2층 구조를 채택하였다. 외국인 거류지 외에도 대구, 광주를 비롯한 지방 각지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사택이 서양식으로 많이 지어졌다. 서구식 주택은 재료, 외장적인 면에서, 형태적인 면에서, 그리고 2층이라는 구조적인 면에서 여러모로 전통적 주택의 형식에 대한 관념을 깨뜨리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서양식 주택들은 상당부분 한국의 상류계층에 영향을 주었지만, 단기간에 출현했다가 사라지고, 일식주택과 달리 보편적인 한국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우리의 근대주거를 논할 때 한국 주택유형의 하나로 편입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7) 정기철 등은 이를 두고 “문화적 의미와 연관성은 갖지 못하는 양식들의 범람”이라 하였다. (정기철 외 2인, 1987.)

IV. 개항기 주거에 대한 재조명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가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이양되는 과도기인 개항기의 한국 주거를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 다양한 문헌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개항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서 진행되는 주거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주거의 근대화는 다각적인 사회사적 변화, 미시사적 변화, 일상사적 변화, 물리적 수준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진행되는 것이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거공간이 문명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계층별, 경제수준별로 매우 다양한 주거수준, 그리고 그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상이한 문명화의 정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개항기에는 그 미시적 구조, 평면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 물리적 표현 등이 근대적으로 나타나는 주거가 일반적인 양상은 아니었으며, 매우 특수한 일부에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셋째, 서울지방의 상류계층, 중류계층의 주거는 외형적으로는 서구, 또는 상위계층의 주거를 선망하고 모방하며, 결국 그것들과 동화되는 과정 중에 있었다. 또한 일부 상류계층의 주거는 합리성과 평등성을 바탕으로 한 근대성을 확연히 드러내었으며, 이는 서구화와 모방화는 별개로 자체적인 성숙에서 발현된 매우 선진적인 의식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하 계층들의 주거는 개항시기까지는 모방화, 동화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아마도 그 이후시기에 이르러서야 상위단계와 동화되는 움직임이 일어나리라 예상되었다.

넷째, 서민계층 이하의 주거는 개항기까지는 수치심과 불쾌감의 통제, 개인화된 영역의 등장, 주거공간의 합리성, 위생관념의 일반화, 일상사에 있어서의 통제된 상호작용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명화의 양상이 요원한 상황이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개항기의 주거를 고찰해 본 바에 의하면 근대화의 과정은 서구의 문물과 부딪치면서 겪게 되는 충돌과 적응, 수용, 거부 등의 정, 반, 합의 과정이었다. 또한 사회적 성숙에 따른 자체적 요구에 의한 변화 역시 한편에서는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서구라는 명제가 함께 공존하는 상황에서 근대화 과정은 문명화 과정이라는 일반적 진행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주거의 여러 정황들이 매우 설득력 있게 뒷받침 해 주었다.

개항 시기는 한국사회 전반의 근대화 물결 속에서 주거도 근대화의 대열에 편입하기 시작하는 시기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주거의 근대화과정은 생활사 전반에 걸친 삶의 변화된 습속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양풍주택의 건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개항시기의 전반적 주거상황과 주거의 근대화의 계기를 마련한 시대적 배경 및 일상사의 변화를 조명해 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주거, 또는 그 변화를 논함에 있어서 인문사회적, 건축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근대성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도 하나의 단편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각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근대화가 곧 서구화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한다. 문명화이론은 서구에서의 발상이지만 보편적인 발전과 성숙에 대한 심도 있는 담론을 제공하는 이론으로서, 우리나라의 주거를 되돌아보는데도 객관적으로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주거의 변화과정에서 개항기 주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전 시대의 봉건적 사회상으로부터 탈피하여 근대화의 초석이 되는 제반 여건들이 거시사회적으로, 미시사회적으로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항기의 주거를 다양한 시각에서 추적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는데 본 고의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 주거의 근대화가 성숙되는 시기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도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 접수 일 : 2003년 05월 15일
- 심사 일 : 2003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09월 22일

【참 고 문 헌】

강재연, 정창열(1981). *한국의 개화사상 -근대문명과 한국근대사-*. 서울 : 비봉출판사

김영자 편역(1994). *서울, 제2의 고향 -유럽인의 눈에 비친 100년 전 서울-*.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김선재(1987). *한국 근대도시 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순일(1982). 개화기의 주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6(106), 27-31.

김정신(2001). 개화기 건축. *한국건축역사학회 창립 10주년 기념학술발표대회집*, 140-151.

김태영(1991). 구한말 외인건축술의 전래연구. *건축역사연구*, 1(1), 117-127.

노르베르트 엘리아스(1976). 박미애 역(2000). *문명화과정 I, II* 서울 : 한길사문세이, 홍승재(2002). 근대 부농가의 부엌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영,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8), 71-78.

문홍길(1982). *개화기 이후 한국 전래주거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혁, 진정(1997). 주택의 상층지향과 모방성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7(2), 185-190.

- 동화일보사 편(1978). 사진으로 보는 한국 100년(1876~1978). 서울: 동화일보사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2002). 개항 이후 서울의 근대화와 그 시련 (1876-1945). 서울 : 서울특별시(상). 서울 : 열화당
- 신석호 외(1971). 신생활 백년 제7권 -한국현대사 (1863-1945)-. 사진 자료편. 서울 : 신구문화사.
- 신영훈(1983). 한국의 살림집서울특별시(1984). 사진으로 보는 서울 백년. 서울
-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대학원동창회 편. 한국주택 자료집 -개항기에서 해방전까지-. 서울
- 이만열 외(1996). 근대문명과 한국근대사.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상백(1962). 한국사 -근세전기편-. 서울 : 을지문화사
- 정기철 외 2인(1987).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 한국근대의 건축에 대한 시대구분.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7(2), 97-102.
- 조은(1993). 한말 서울의 가족구조. 한국 사회사연구회 편. 한국 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주남철(1994). 한국주택건축. 서울 : 일지사
- A. H. 새비치-랜도어(1819). 신복룡 장우영 역주(1999). 한말 외국인기록 19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서울 : 집문당
- G. W. 길모어(1892). 신복룡 역주(1999). 한말 외국인기록 17 - 서울풍물지-. 서울 : 집문당
- H.N 알렌(1908). 신복룡 역(1979). 조선전문기. 서울 : 박영사
- W. E. 그리피스(1882). 신복룡 역(1999). 한말 외국인기록 3 - 은자의 나라 한국-. 서울 : 집문당
-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1999). 한국건축 100년. 서울 : 국립 현대미술관
- Adelheid von Saldern(1997). *Geschichte des Wohnens Band 3*. Stuttgart : DVA
- Karnacher, U.(1980). *Wohnstrukturen als Anzeiger gesellschaftlicher Strukturen*. Frankfurt